

# 담양교육청학교지원센터, '공생의 물길 영산강 프로젝트'

용소 탐방과 연계, 담양학생자치연합회 학생 42명과 함께 운영  
환경사랑 실천 활동 통해 학생들의 생태시민 역량 강화위해 마련



담양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15일부터 이틀 동안 담양학생자치연합회 학생 42명과 함께 '공생의 물길 영·산·강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6월에 실시한 영산강의 시작점 용소 탐방과 연계하여 호남의 젓줄인 영산강 물줄기를 따라가 보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생태환경을 탐구하고 환경사랑 실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생태시민 역량을 기르려 하였다.

먼저 15일에 기존 중학교 학생회 임원과 새로 선출된 초등학교 학생회 임원들은 친밀감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결속을 다지고 2학기 실천 과제를 '비속어 없는 학교 만들기'로 선정하여 담양 관내 모든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16일에는 승전보와 영산강문화관 탐방 후 영산강 물줄기를 배를 타고 이동하면서 절경을 감상해 보는 황포돛배를 체험하고 4km가 넘는 마지막 종착지 영산강하구언에서 영산

강 탐방을 마무리하였다. 특히, '공생의 물길 영·산·강 프로젝트'를 알리기 위해 준비한 플래시몹은 지나가는 관광객들과 자전거 라이더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관광객 한 분은 "재활용품으로 만든 빨대 피리와 마라카스를 가지고 환경 사랑 플래시몹을 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생태 보존을 위한 '지9하는 탄소중립 실천' 등 다양한 표어가 적힌 종이박스 팻말로 마지막을 장식하여 학생들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잘 전달되었다"며 감동을 전하였다.

이경애교육장은 "앞으로 학생들이 영산강을 더 자세히 알아보면서 우리 지역에 대한 애郷심을 키우고 적극적인 생태환경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또한 이번 행사가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직접 찍은 사진을 전시하는 '영산강 사진전'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담양=박종영기자

## 해남동초, '2023. 찾아가는 통합교육(제과제빵) 프로그램' 실시



해남동초등학교는 지난 15일 5학년 4반(26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3. 찾아가는 통합교육(제과제빵)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 장애공감문화 확산 위한 찾아가는 통합교육 운영

이번 프로그램은 해남특수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강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됐다. 특수학급 학생이 일반학생들과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며 제과제빵을 만드는 과정에서 장애공감문화가 자연스럽게 조성되고 확산되는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었다. 또한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실천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다는 부분에서도 많은 관심을 끌었다. 강사 선생님의 지도하에 특수학급 학생을

포함한 5학년 4반 학생들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에 걸쳐 함께 협력하며 브라우니 만들기를 진행했다. 1교시는 브라우니에 필요한 재료를 알아보고 안내된 비율에 맞춰 학생들이 직접 계량하고 측정하여 반죽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2교시는 완성된 브라우니 반죽을 틀에 붓고 자신의 취향에 맞게 토핑을 올린 다음 오븐에 구워 브라우니를 완성하였다. 해남=기동주기자



## 나주 빛누리초, 인성 교육 주간 운영

나주 빛누리초는 함께하는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으로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기본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어울림 인성교육 주간을 운영하였다. 가정에서부터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활 속 어울림 실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인성 어울림 프로그램에서는 학년별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다양한 활동들로 운영되었다. 각 학급에서는 '존중'이란 무엇인지 학급별 교육을 실시하였고 시끄러운 소리가 힘든 친구들을 존중하며 학교 소음을 줄이는 Quiet Time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조용한 존중'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학급별로 Quiet Time 실천 캠페인에 도전하고, 복도 통행 시 '쉿' '걸어가지' 권장 캠페인을 실천하였다.

그리고 가족 연계 어울림 실천 프로그램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활동을 실천하며 화합과 사랑을 키우고 우리 가족만의 긍정 인사법을 실천해보기도 하였다. 특히 친구들의 응원 메시지를 담은 '생명 지킴이 나무 꾸미기' 활동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배려하는 생명 존중 시간을 가졌다.

어울림 교육에 참여한 빛누리초 6학년 한 학생은 "우리가 힘을 모아 계단, 복도를 살살 걷기, 소리 지르지 않기, 소곤소곤 대화를 통해 조용한 시간 캠페인 도전에 성공해서 학급 인증서를 받았던 경험이 소중한 것"이라며 밝은 소감을 전했다.

빛누리초 재학생 교감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 속에서 즐겁게 학교생활을 해나가기 바란다. 앞으로도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기본생활 습관과 바른 인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체험과 실천 중심의 어울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함 빛누리 어울림 교육을 통해 학생 상호 간의 평화로운 관계가 증진되었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남을 배려하는 '조용한 존중'을 통해 공동체 역량을 기르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나주=송준표기자

## 무안 남악고, 1박2일 독서캠프 '공존 - 심, 돌아보기' 운영

### 학생의 삶과 삶을 연결해 보는 경험의 장 마련

무안 남악고등학교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가을 맞이 독서 행사로 1박 2일 독서 캠프를 운영했다.

"공존(심, 돌아보기)"라는 주제로 도서관과 교정에서 진행된 이번 캠프는 1,2학년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독서에 대한 흥미 유발, 독서하는 분위기 조성, 비경쟁 토론을 통한 소통과 공감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과학선생님과 함께하는 커피피겨거기를 활용한 친환경 비료 만들기 & 반려식물 분갈이하

기, 전문상담교사와의 힐링데이, 사서선생님과 독서삼매경 활동 등을 통해 학생의 삶과 삶을 연결해 보는 경험의 장을 마련했다.

행사에 참여한 1학년 학생은 "이번 캠프를 통해 책을 좀더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친구들과 토론하고 얘기를 나누며 미래의 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어 좋았다. 책도 펼쳐 보고, 꿈도 펼쳐보는 기회를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남악고등학교는 오는 10월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적 사고력 융합을 위한 인문사회&자



연·공학 콘서트도 개최 예정이다.

무안=이기성기자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